

CEO는 여름휴가 때 책을 읽어라!

삼성경제연구소, 경제·경영 10권에 기타 10권 선정 ... 독서량 부족

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기업의 CEO(최고경영자)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5년 여름에 꼭 읽어야 할 책으로 <블루오션 전략>과 <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> 등을 선정했다.

<CEO가 휴가에 읽을 책 20선>으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도서를 경제·경영 분야 10권과 기타 10권으로 나눠 선정했다.

경제·경영 분야는 ▲블루오션 전략(김위찬/르네 마보안) ▲잭웰치 위대한 승리(잭 웰치/수지 웰치) ▲짐 콜린스 경영전략(짐 콜린스) ▲미래기업의 조건(C. 크리스텐슨 등) ▲톰 피터스의 미래를 경영하라(톰 피터스) ▲경영이란 무엇인가(조안 마그레타) ▲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(조영탁) ▲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(안철수) ▲괴짜 경제학(스티븐 레빗 등) ▲경영의 교양을 읽는다(박기찬/이윤철/이동현) 등이다.

기타 분야에서는 ▲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(탄취잉) ▲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(잭 웨더포드) ▲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(스티브 도나휴) ▲우체부 프레드(마크 샌번) ▲생각의 지도(리처드 니스벳) ▲대륙의 지도자 등소평(등용) ▲문학의 숲을 거닐다(장영희) ▲100만불짜리 습관(브라이언 트레이시) ▲용서(달라이 라마 등) ▲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(자크 아탈리) 등이 꼽혔다.

설문조사에 응한 CEO 중 63%는 한 달에 1-권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독서를 하는 주 목표는 시대 트렌드 포착(38%), 경영 아이디어 발굴(30%), 삶의 지혜 획득(28%) 순으로 조사됐고 가장 즐겨 읽는 분야는 단연 경제·경영 관련도서(71%)였다.

<화학저널 2005/07/27>